

음주 망년회 “NO” 문화 망년회 “OK”

앱 뒤져 할인식당 등 찾아가는 실속파

펜션·콘도서 ‘1박 2일’ 파자마 파티형

공연관람·봉사활동 등 건전모임 늘어

‘흥청망청’ 송년회? 이젠 옛 말이다. 장기 불황에 때 이른 한파가 닥친 데다 대선까지 겹치면서 차분하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실속파 송년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벤트성 송년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도 소셜 커머스에서 송년회를 겨냥해 내놓은 식당 할인권, 공연 할인권, 송년회 관련 앱, 대리운전 서비스 등도 곁들여져 세밀 풍경을 바꾸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8)씨는 “몇 해 전부터 같은 부서 동료들과 음주

송년회 대신 공연 관람으로 송년회를 대신하고 있다”며 “올해는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금 고급스런 식당도 예약해 두었다. 이벤트로 진행된 식당할인권도 구입해 두었다.

회사원 박모(28)씨는 입사해 처음으로 맞는 송년회를 앞두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 송년회 예티켓을 찾아 놓았다. 잘 놀고 일 잘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멋진 옷도 준비하고 건배사와 노래도 준

비했다. 회식을 마치고 상사들의 귀가를 돕기위한 대리운전 업체 전화번호도 메모해 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새벽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광주·전남지역은 20~40mm, 남해안은 60mm 이상으로 예상된

다. 아침 기온은 3~6도, 낮 기온은 11~13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남해안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주말인 15일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그쳤다가 휴일인 16일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강풍 동반 많은 비

14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새벽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광주·전남지역은 20~40mm, 남해안은 60mm 이상으로 예상된

다. 아침 기온은 3~6도, 낮 기온은 11~13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남해안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주말인 15일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그쳤다가 휴일인 16일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 학교 행정직 ‘근무시간 축소’ 무산

도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전남도교육청 일선 학교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무산됐다.

13일 전남도의회와 도 교육청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남 본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북무조례 개정안을 투표 끝에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본회의 의원 62명 중 49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20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됐다. 반대의원들은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찬성의원들

은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교과부도 이의제기가 없는 만큼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무조례안 부결에 따라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항의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의원간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 노조는 “한 울타리 안의 학교 구성원간 근무시간이 같은 것은 당연하다”며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해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여건을 고려,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2014년까지 택시 카드결제기 부착

오는 2014년까지 광주지역에서 운행되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부착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 연말까지 전체 택시 8221대(법인 3424대, 개인 4797대) 중 51.1%인 4200대(법인 1650대, 개인 2550대)에 카드결제기를 부착한다. 현재까지는 법인

과 개인택시 각 750대씩 1500대에 카드결제기가 부착돼 있다.

시는 내년과 2014년에 각 2000대씩 카드결제기를 부착해 모든 택시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카드결제기 1대당 25만~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3분
해지기 17시 2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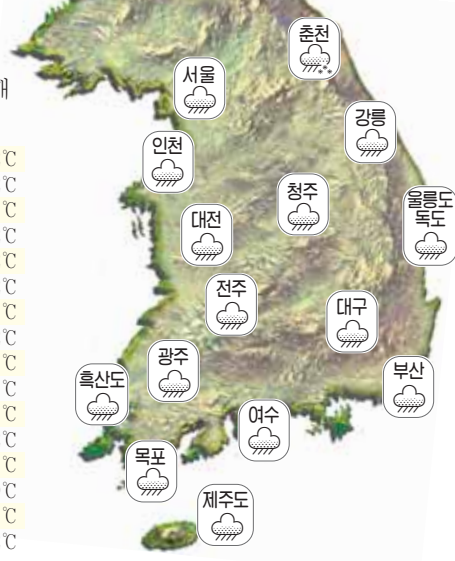


달돋이 08시 06분
달지기 18시 31분

우산 준비하세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 비	6/12℃
목포	흐리고 비	6/12℃
여수	흐리고 비	6/11℃
나주	흐리고 비	5/12℃
완도	흐리고 비	6/12℃
구례	흐리고 비	5/12℃
강진	흐리고 비	5/11℃
해남	흐리고 비	5/12℃
장흥	흐리고 비	5/11℃
순천	흐리고 비	4/11℃
영광	흐리고 비	4/11℃
진도	흐리고 비	6/12℃
전주	흐리고 비	2/11℃
군산	흐리고 비	2/9℃
남원	흐리고 비	2/11℃
홍산도	흐리고 비	7/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목포 02:11	07:3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15:03	20:1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3.0m	여수 09:51	03:07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3.0m	21:54	15:54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 씨						
최저/최고	7/11	4/9	3/8	2/7	-2/5	-2/6

광주 택시요금 대폭 오르나

업계, 기본요금 2800원 인상안 제출

내년 2월 초 광주시의 택시요금인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만이다.

13일 광주시와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광주택시조합이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검증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택시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정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초·중순께 인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조합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2800원(현행 2200원), 주행요금 107m당 100원(150m당 100원), 시간요금 26초당 100원(36초당 100원) 등 32.29%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조합측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요금조정 건의안을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화의 명목으로 검토를 미

뤘지만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정된 인상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잠정 유보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광주와 여건이 비슷한 대전과 울산 등의 인상안을 검토해 제출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주거나 요금을 현실화해줘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불

현장에 盧 비난 편지 발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은 동구 신운동 노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동구청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생가에서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생가 주변 폐

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감식작업을 벌였다.

구청이 설치한 CCTV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전날 새벽 4시 5분께 노 전 대통령의 생가에 들어가는 장면과 곧이어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재 현장에는 ‘정의실천행동당’ 명의로 작성된 A4 용지 두 장의 편지가 발견됐다.

‘노태우를 단죄하며...’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노 전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킨 도둑의 쫓마니”라고 표현하고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사은대축제

12.14 ▶ 12.25



현대신한카드 5~2개월 무이자 할부

~ 2012. 12. 31 까지



현대백화점



「현대신한카드」 현대백화점카드, 현대카드S 포함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 12.14(금)~12.25(화) 증정장소 : 9층 사은데스크

30/ 60/ 100 만원이상 구매시
1만 5천/ 3만/ 5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당일 본인 구매 영수증에 한하며,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증정 불가합니다. * 한 개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 가전, 식품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 (단, 소형가전/ 건강식품은 100% 인정)

· 양곡, 상품권, 문화센터, 여행사, 교통통료, 임대매점 (안경점/ 시력가 등) 및 일부 매점은 증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권 수령 후 일부금액의 취소시 상품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행사 종료 후 잔액에 대한 상품권 지급 불가)

「가전·가구/ 모피」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 현금+카드+상품권/ 단일브랜드 】 증정기간 : 12.14(금)~12.25(화) 증정장소 : 9층 사은데스크

당일 200/ 300/ 500만원이상 구매시 10/ 15/ 25만원 상품권

· 모피는 3/4층에 한정합니다. · 가전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 (단, 소형가전은 100% 인정)

「삼성/LG전자」 가전 구매고객께

7.5% 상품권을 드립니다

【 현금+카드+상품권/ 단일브랜드 】 증정기간 : 12.14(금)~12.16(일) 증정장소 : 8층 본매장

당일 100/ 200/ 300/ 500/ 1,000만원이상 구매시
7만 5천/ 15만/ 22만 5천/ 37만 5천/ 75만원 상품권

· 당일 본인의 구매 영수증에 한하며,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해 증정하지 않습니다.